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김우성



왜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루스벨트나 영국의 챈들처럼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지도자로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추앙받는 대통령은 없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이 저마다 '국민'을 앞세우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을 주는 후보라곤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다. 게다가 정권말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측근 비리가 불쌍사나운 탓이기도 하다.

실패한 대통령, 이는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들이 투표 때까지 국리민복을 외치지만 대권을 잡는 순간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한 채 마치 전리품을 나눠주듯 측근정치에 연연하다 온갖 비리에 치여 실패로 종결짓고 만 것이다.

## 역대 정권, 부끄러운 뒷모습

MB는 보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상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측근 대사수가 사법처리됐다. 면토에서 왕자관, 문고리 권력에 이르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측근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습은 그저 미어질 따름이다.

이런 심정을 헤아렸을까. 얼마전 MB는 취임후 6번째 사과를 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는 집권 4년차 신년연설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레임덕은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다. 1~3대 대통령 이승만은 신생국 전통 수립이라는 역사의식보다 권력만 추구하다 독재자로 낙인찍혀 망명지 하와이에서 운명해야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9대 대통령 박정희도 장기독재 폐해로 지탄을 받아 오다 부하의 총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군부정권 전두환·노태우도 재임기간 비리로 감옥신세를 지며 국가 망신을 시켰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의 검찰조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를 맞기도 했다. 정권 말만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비리 드라마'

겠는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다. 전면 무상보육으로 빚어지는 재정난을 보면서도 달콤한 말로 국민의 혀된 기대만 키우고 있다.

## 잠룡들, 반면교사 삼을 덕목

대선후보들은 우선 가족·측근 비리 차단 의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선언과 함께 재임기간 중 이를 지켜낼 것으로서 자기 정권에 좋은 선례로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와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군형강 있는 역사관, 국리민복과 소통, 경제·국방·외교에 대한 신경 등을 두루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들도 선진국 진입의 분수령인 2013 체제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한다.

국회 로텐더 훌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흉상대가 준비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수십 년이 지난건만 모셔진 흉상은 전무하다. 그만큼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다.

"We have a leader(우리에겐 지도자가 있다)." 지금도 미국인들의 주앙을 받고 있는 루스벨트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국가재건을 이끌 때 위기극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국민들의 외침이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가질 수 없을까. 12월 대선을 앞두고 아쉬움이 부찌 켜지는 요즘이다.

〈편집부국장〉 wskim@kwangju.co.kr

## 우린 좋은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가

고까지 언급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말이다. 영부인의 4촌들과 문광부 차관 등이 이미 사법처리되는 등 측근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사실 친령의 구속과 MB의 몰락은 사업자들이 면이 크다. 집권초부터 여당에서 조차 대통령에 부담을 준다면 이 전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요구를 서운해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실패하긴 마찬가지였

의 연속이다.

지금 여야 후보들이 연말 대선을 향해 뛰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는 바로 대선후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덕목이다. 그럼에도 과거 잘못된 통치행위를 교훈으로 삼고 국민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는 이미 쿠데타로 규명된 5·16을 구국의 혁명이었나 최선의 선택이었나 하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다. 개인사와 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역사관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또다시 헌법을 놓고 아쉬움이 부찌 켜지는 요즘이다.

〈편집부국장〉 wskim@kwangju.co.kr

## 경제민주화, 협동조합으로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와 공정한 기회 부여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는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성장을 저해할 공산이 크고, 후자는 정책효과가 시일이 걸리며 마이너리티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큰 것이다.

민주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단어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불공평하다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부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시장실패를 극복할 대안은 없을까?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유통하는 것이 이런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대안일 것이다. UN에서는 올 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

에서는 지금 협동조합을 재조명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단합해 스스로의 힘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자본에 맞서기 위해 구매조합을 설립한데서부터 시작한 조직이다.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수의 구매자 힘을 합해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유리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데서 출발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공동으로 운송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판매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캐나다·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도 협동조합이며,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역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05년 수상자·농협중앙회 차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있는 이유는 기업과는 다른 목적과 소유구조 때문이다.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식에 비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회사는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움직이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주의가 원칙이므로 그만큼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가·배당에만 매달리는 주주와 달리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이기 때문에 주인이자 고객으로서 서로간의 협동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도 양극화도 자연스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05년 수상자·농협중앙회 차장〉

요하다.

우선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4800만톤의 물을 모두 하천의 기능유지에 활용해야 한다. 또 농업용량과 900만톤의 수질능력이 있는 승용보 응수를 교차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영산강 상류에 수질악화로 언제든지 비상방류하여 오염도를 허석시킬 수 있는 생태저류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Murray) 강에 상습적으로 유발되는 녹조현상을 상류의 흉내(Hume dam) 방류로 조절하는 점을 참고하여 영산강 상류에 환경용수 전용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산강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이다. '먹지 않는 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영산강이 호남문화와 생명의 젖줄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고대 황하강 등 인류 문명의 발상은 강과의 공존 모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지역의 조상도 지난 수 천년 간 끊임없이 변화해온 영산강과 공존해 왔다. 오늘의 영산강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공존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생물학과 교수〉

이렇게 황당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항의하려고 전화를 하면 결제되는 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만 있는 거리며 핸드폰 관리를 잘못해놓고 따지면 어떻게 하나고 되레 큰소리쳤다.

더 놀라운 일은 현재 스마트폰 기계에는 소액결제를 막는 기능이 없다고 한다. 다만,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액결제 차단 설정을 해놓으면 원치 않는 요금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이 이런 협정을 잘 알고 애꿎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혜숙·광주시 동구 서서동

##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소액 결제 피해 '황당'

네살배기 어린 아기가 13만 원을 소액결제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소액결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 터치 한번 잘못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쓴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장난감과도 같다. 많은 콘텐츠와 화려하고 선명한 화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각종 게임들까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놀이기구가 되는 것이다.

그저 무료게임을 만지작거리며 노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13만 원을 내라는 문자가 날아온 것이다. 이는 결제할 때 본인 확인도, 암호 입력도 없었던 것이다.

이 게임 콘텐츠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5~6만 원 짜리 아이템에 손가락 한번 터치으면 결제되며

게 해놓는다. 은행 통장에서는 스마트폰 요금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대출자, 각종 공과금 등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언제 빠져나갔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조작실수로 빠져나간 내역을 통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있어서 당하고 미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이 이런 협정을 잘 알고 애꿎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혜숙·광주시 동구 서서동

## 시설

## 잇단 화력발전 추진 신중 접근 필요하다

수익성이 높은 셈이다.

전남에서는 MPC 추진 해남 화력발전소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 주민들이 '오염물질 종합선불세트'로 여겨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들이 인정 적이고 확실한 수익으로 판단, 잇단 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전력난 속에 발전소를 짓는 데 대해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환경피해 소지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로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이 한창이다. 더욱이 전남은 청정해역, 수려한 자연풍광 등 천혜자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력발전에 뛰어든 것은 물론 화력발전에 민자가 허용된 탓이다.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안정적 고수익이 보장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해남 전력 생산단가는 kWh당 67.12원으로 액화천연가스 생산단가는 kWh당 142.36원보다 2~3배 저렴하다. 그만큼

## 제2, 제3의 지역 광장음악회 키워야

지난 주말 옛 한국은행 자리인 광주 금남공원에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다. 다음달로 50회째를 맞는 광장음악회다. 비록 화려한 공연장의 조명과 음향과는 동떨어진 조촐한 무대였지만 이날 관객들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에 흡뻑 빠져들었다.

어디 광장음악회 뿐인가. 지역 문화계에서는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한 무등산 풍경소리, 천원의 낭만 등 작지만 색깔있는 음악회들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시 광장음악회처럼 적은 예산으로 꾸려내다 보면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같은 인프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드웨어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문화볼거리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이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장음악회가 특별한 건 지역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광주시로 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씨 부부와 광장음악회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이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같은 인프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드웨어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문화볼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 無等鼓

진시황이 숨을 거둔 뒤 진 이세가 왕위에 오르자 환관 조고는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훌륭했다. 급기야 모반을 휘둘렀다. 그는 조회 때 진 이세에게 말한 편지를 살펴았다고 하고 사슴 한 마리를 데려왔다. 이에 진 이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분명히 사슴인데 어찌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조고는 계속 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진 이세는 다른 대신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신들은 조고의 권세가 두려운데다, 조고가 무슨 꿈꾸어도 물었다. 그에 대답해 조고는 조고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에 진 이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분명히 사슴인데 어찌 말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말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대신들에게 대해 어떤 명분이든 붙여 모두 죽여 없앴다. 이에 대신들은 조고 앞에서 자기의 힘을 주장하지 못했으며, 진 이세 역시 '내가 사슴과 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신자란에 빠졌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진 이세는 훗날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조고의 농간에 빠져 목숨을 구걸하다자였다.

사기(史記)에서 전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말이다. 웃사를 농락하고 합부로 권세를 휘두른다는 의미인데, 비록 환관 조고의 죄가 중하지만 농락당한 황제나 권세에 굽복한 대신들도 죄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회사에 48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최근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내에서 '신의 경지'라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법

망을 피하지 못했으니, 김 회장은 그릇된 길로